논산훈련소 훈련병 '아들 대하듯'

신행현장

충북예비역불자모임 '법성회'

"여러분이 어느 부대로 가시거나 이 수계 인연으로 매주 법회에 참석하시어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군 생활이 힘들 때에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항상 봉사하고 발원하는 불자가 됩시다."

19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전국최대의 전법도량인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법사 최재열) 군법당.

이날 봉행된 수계대법회에서 계사인 풍주선원장 범추스님은 4,000여명의 훈련장병들에게 계첩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장병들은 스님들로부터 연비를 받는 순간 따끔함을 느끼면서 억겁동안 지어온 죄를 씻고 불자로서 거듭날 것을 발원했다. 풍주사 합창단의 음성 공양과 각설이 공연을 통해 고된 군생활을 하심으로 인내하리라는 의지도 보였다.

이날 '고암'이란 법명을 받은 김성우(22) 훈련병은 "후원단체들이 사기진작을 위해 정성스레 마련한 합장주와 소책자를 받고 초코파이, 음료수, 빙과류 등의 공양물을 먹을 때는 입소 전의 즐거운 한 때가 떠올라 제대하면 남에게 베푸는 불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장병 수계법회는 여느 법회와 같은 식순으로 진행되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법회를 주최한 단체가 재가 신행단체라는 것. 종단이나 지역 사암연합회 또는 큰 사찰이 주관해 온 대규모 장병 수계대법회를 충북지역 예비역불자들의 모임인 법성회(회장 이만호)가 처음으로 나서서 불사를 성공리에 마친 것이다. 이날 법성회 회원들은 주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소리없이

93년 창립 군포교 주력
불서 50만여권 법보시
충북불교회관 건립 앞장

뒷자리에서 행사를 지원했다.

지난 93년 8월 24일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을 증명법사로 창립(초대회장 김방일 공군 예비역준위)한 법성회는 '군승단의 군포교를 지원하고 지역 포교불사에 동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군포교 지원, 불서 보내기, 지역포교, 장학사업, 전역자 취업알선 등 다양한 신행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 창립과 동시에 시작한 '불서 보내기 운동'은 최대의 중점사업. 보시중 법보시가 으뜸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군부대, 교도소, 경찰청, 복지단체 등에 50여만권을 법보시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 공군호국영축사, 육군 호국충용사 및 호국청안사 등 지역 군법당의 법회를 지원하는 한편 50여 부대를 대상으로 군민합동법회와 위문을 실시하고 전역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것도 법성회의 주요한 사업이다.

또한 법성회는 98년 완공된 충북불교문화회관 건립불사의 산파역이 될 정도로 지역포교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봉축행사와 청주 유등재, 영규대사추모재 등 불교행사에 동참하면서 청주시립양로원 등 복지기관을 위문하고, 120여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성지순례와 장학사업도 꾸리고 있다.

95년부터는 회원 부인들을 중심으로 관음회(회장 김선혜심)를 구성해 합창단 활동과 간병봉사활동을 펼쳐 부부가 일심동체로 보살행을 펼치는 한편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bubsung.com)도 개설, 사이버 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직업군인 및 군종병 출신 특유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펼쳐진 법성회의 이 같은 눈부신 포교활동은 군포교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닐 수 없다.

이만호 법성회 회장은 "연말까지 불서보내기 운동을 회향하고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호국영령추모재를 거행할 예정"이라며, "전국적으로 부족한 군포교 지원단체를 늘리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9일 거행된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 주최 논산훈련소 수계대법회에서 풍주선원장 범추스님이 훈련병들에게 염주를 목에 걸어주고 있다.

생활속의 불교

'나 홀로'란 없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단 한순간이라도 독립적일 수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완벽한 자가발전이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우주 또는 현상계라는 거대한 발전소에 연결된 동력기관에 불과하다고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들은 나의 육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속에 담긴 정신 또는 영혼을 '나만의 나'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를 위한 일에 집착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고(苦)인 까닭은 바로 그 '나'라는 착각, 아상(我相)때문이라고 하셨다. 아상이 있으므로써 대상을 취사선택하고 끌어모으고 아끼고 하기에 사랑과 미움이 생기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따르는데, 사랑이든 즐거움이든 영속하는 것은 없으니 결국 괴로움만 늘게 되어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좋다'고 하면서 열심히 분별하고 집착한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나', '나의 것'을 향해 모든 정력을 쏟아 붓는다.

'나'라는 독립된 세계. '나'로 명명되는 개별적인 세계가 없고 오로지 나와 너, 나와 일체의 대상이 하나의 세계로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굳이 '나'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실은 닫힌 세계란 없다. 세계의 실상이 그러하다. 생명체라면 외부로부터 부단히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산다. 그래서 세상을 한그루의 거대한 그물로도 본다. '나'는 그 나무의 잎새가 되고 '나'는 그 그물의 한 코가 된다. 말하자면 잎새와 잎새, 잎새와 나무는 한 몸이요 그물과 그물코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잎새나 그물코가 어찌 나홀로 무엇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 홀로'란 없다. 이 세상 어떤 일이라도 내가 했다, 네가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건 다만 상대적인 표현일 따름이다 따라서 내것, 네것을 고집하는 것부터가 이 현상계의 이치를 외면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방 식구요, 도반인 것이다. 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나를 위해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영가천도 기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부모공양 극진히"



원광스님
김포 선경암 주지

얼마 전 한 방송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육십 대 이상의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자식들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노인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식이 있는데도 혼자 살면서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복지사회라는 것은 물질적 조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불만이 없는 평온한 마음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라야 진정한 복지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사회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받드는 마음이 간절하고, 부모는 자식을 보살피는 일을

"기복 앞세운 백중기도
아무런 공덕 없어요"

바르게 한다면 복지사회는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나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기고도 무서운 욕망을 다스리고, 마음에 평온과 청정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행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불자(佛子)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보다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불자들이 노인이 되어 자식이 있는데도 혼자서 고생하며 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불교를 믿는 사람은 노인이 되어 서글픈 인생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첫째가 불교를 바르게 믿지 않은 과보이며, 둘째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결과로서 보상받지 못하는 인생의 말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 어느 종교의 가르침보다도 간곡하게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자가 인생말년에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일이 생기거나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 개인뿐 아니라 불교전체를 망신스럽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가신자 뿐 아니라 출가수행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교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우란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불자들은 이때만 되면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 영가천도를 위한 백중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부모를 잘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백중기도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백중기도는 목련존자의 효행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중기도를 하는 사람이 지금 살아 있는 부모를 잘 받들지 않아서 홀로 고생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기도의 효과가 과연 있겠습니까.

백중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즉시 돌아가 고생하시는 부모를 잘 모시고, 또한 부모의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한다면 기도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영가천도의 기도를 해서 자신에게 복이 오게 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공덕도 없을 것입니다.

우란분절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님의 심신이 편안할 수 있도록 주변을 보살펴 드려야 겠습니다.

신행 캘린더

8월 29일 (수)

■수묵산수화전=류승애씨의 수묵산수화전이 9월 4일까지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류씨는 강화 전등사, 양평 수종사 등 사찰의 풍경과 구도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산수화로 담아냈다.(02)736-4084

8월 30일 (목)

■정토학회 학술회의=한국정토학회는 오후 2시 동산반야회관 2층에서 '정토교와 한국문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02)581-3138

■대전불교언론인회 정기법회=대전불교언론인회는 오후 7시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 이후 두 번째 법회를 봉행한다. (011)423-7101

9월 1일 (토)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처 개원식=보리수선원은 오후 3시 천안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처'의 개원식 및 불상 점안식을 봉행한다. 위빠사나 수행처는 170평 건물로 1층 숙소와 2층 수행홀로 구성됐다. (02)928-2844

9월 2일 (일)

■고 장경호 거사 추모식=사단법인 한국불교대원회는 오전 10시 대원불교회관 3층 큰법당에서 故 장경호 거사 26주기 추모식을 봉행한다. (02)733-9171

9월 4일 (화)

■나눔의집 역사관 개관 3주년기념 하루찻집=나눔의 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조계사 앞 찻집 '생각해보자'에서 역사관 개관 3주년 기념 하루찻집을 개최한다. (031)768-0064

9월 5일 (수)

■팔만대장경 완간 기념법회=동국역경원은 오후 1시 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팔만대장경 완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2260-3893

■주부 불자 위한 환경 체험=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주부 불자 모임인 '어머니 환경위원회'는 오전 11시 '주부 불자를 위한 환경 NGO 체험'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주부 불자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02)3147-2600

■호국영령 천도 법회=청주불교사암연합회는 '호국영령 천도 무심천 영등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직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043)256-6254